

# “5·18 정신 알리기 학생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청소년 방송콘텐츠 대회 대상 수상 전남여성 'VIP 허니팀'

### 5·18 전후 이야기 춤사위에 담아...공연·방송조 합작품 지난해 장려상 이어 대상 쾌거 “더 많은 대회 참가할 것”

“5·18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당한 선배님의 정신을 잊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하고 알리겠습니다.”

광주의 한 사립특성화고 학생들이 꾸민 무대가 방송콘텐츠 대회에서 대상을 받아 화제다. 전남여 자상업고등학교의 1,2학년 학생들이 꾸려진 'VIP 허니팀'이 그 주인공.

이들은 지난 2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5회 청소년 방송콘텐츠 경연대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담은 무대와 영상을 선보이며 그 기량을 뽐냈다. 5·18민주화운동 이전 광주 학생들의 일상과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이후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을 다룬 이야기이다.

애초 자신감이 있었던 허니팀은 예선 영상 제출과 동시에 본선 준비를 시작했다. 지난 14회에서 장려상에 그친 탓에 아쉬움이 많았지만 이때 얻은 자신감은 오늘의 대상 수상에 밑바탕이 됐다. 이들은 지난 여름방학을 시작으로 약 한달간 연습 강행군에 나섰다.

준비는 철저했다. 오전 7시 50분까지 학교에 모여 오전 연습을 진행했고 점심시간은 물론, 야간자

율학습이 끝난 이후 12시가 다 되도록 연습에 매진했다.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만큼 5·18 공부도 철저히 했다. 영상과 자료를 다양하게 찾아봤다.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의 희생 정신과 역사를 잘 표현할 수 있을지 부담감과 불안한 마음도 컸다.

이날 인터뷰를 맡은 손예원(18)학생은 당시를 회상하며 “무대가 점점 완성될 수록 불안함 마음은 사라지고 더 잘하고 싶다는 열정이 생겼다”고 말했다.

“무대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는 후련함과 뿌듯함이 느껴질 줄 알았는데 마냥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랜시간 준비한 만큼 짧은 시간에 끝내버린 무대에 아쉬움이 컸죠. 친구들과 모두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더 보여줄게 많은데’라고 말하며 내려왔습니다. 조그마한 실수 하나까지도 생생한 순간이었죠”

허니팀은 총 12명으로 이뤄져있다. 이중 6명이 올해 전남여성상 수상한 ‘콘텐츠 창업과’ 학생들이다. 무대는 공연조와 방송조의 협연으로 꾸려졌다. 학교에서 댄스부로 활동 중인 친구들이 한데 모여



제15회 청소년방송콘텐츠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VIP 허니팀'.

공연조를 맡았고 장비 사용에 능숙한 친구들이 방송조를 담당했다.

근사한 무대를 만들어내기까지는 힘든 순간도 많았다. 공연조는 동선에 따라 이동해야 하고 방송조는 동선에 따라 카메라를 움직여야 했다. 이때 동선이 맞지 않으면 무대와 영상 둘 다 제대로 만들 수 없는 혼선이 빚어졌다. 학교 수업, 자격증과 대회 준비를 병행한 탓에 체력적으로 버겁기도 했다.

그럼에도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광주의 역사를 널리 알리려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다.

전남여성상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숨 쉬는 학교다. 1980년 춘대여상(현 전남여성상)을 다니던 박

금희 학생은 혈액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외면하지 못했다. 광주 기독병원에서 헌혈을 하고 나오던 박씨는 여딘가에서 날아온 M-16 총탄에 복부를 맞아 세상을 떠났다.

이날 지도자상을 수상한 김정원 교사는 “이번 대상은 12명의 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열심히 준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댄스부의 열정과 영상부의 기술, 콘텐츠창업과의 수업이 시너지 효과를 내 수상할 수 있었다”며 “학업과 병행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준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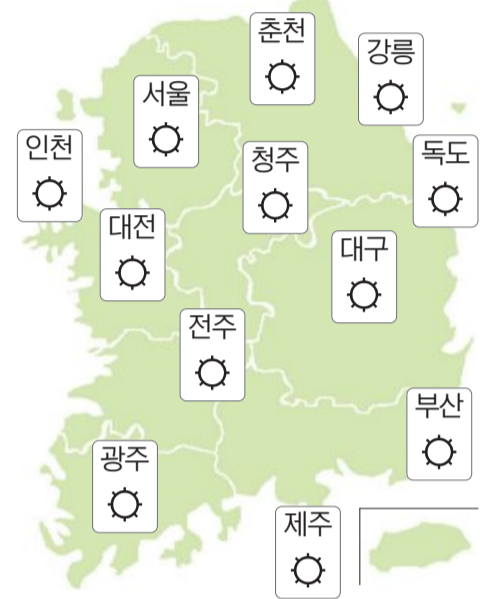
해돋이	06:26	달뜨기	10:46
해질	18:19	달짐	20:54

## 화창한 가을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크겠다.

광주	맑음	16/29	보성	맑음	13/27
목포	맑음	16/26	순천	맑음	16/29
여수	맑음	19/26	영광	맑음	13/27
나주	맑음	13/29	진도	맑음	14/27
완도	맑음	16/27	전주	맑음	15/29
구례	맑음	14/28	군산	맑음	14/27
강진	맑음	14/28	남원	맑음	12/28
해남	맑음	12/28	흑산도	맑음	17/23
장성	맑음	13/28			

## ◇ 전국 날씨



##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0.5	0.5		
	면바다(북)	0.5~1.0	0.5~1.0		
	면바다(남)	0.5~1.0	0.5~1.0		
남해 서부	앞바다	0.5	0.5		
	면바다(서)	0.5~1.0	0.5~1.0		
	면바다(동)	0.5~1.0	0.5~1.0		

##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9:51	04:43
	22:21	17:21
여수	05:05	11:41
	17:42	23:44

## ◇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주의	높음	보통

## ◇ 주간 날씨

10/1(토)	2(일)	3(월)
☀	☁	☁
17/30	18/28	20/27
4(화)	5(수)	6(목)
☁	☀	☀
20/23	13/22	12/20

## 전남도·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 여수 안포 도시민 체험



전남도와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가 마련한 '전남어촌탐구생활'에 참여한 도시민들이 28일 여수 안포 여촌계에서 꽃게 통발 체험을 하고 있다. 수도권, 충청권 등에서 온 이들 8명은 29일까지 2박3일간 어민의 일상을 함께 해보고 전남 어촌으로의 귀어귀촌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 제공>

## 광주시 경제고용진흥원 'ESG경영위원회' 열어



(재)광주시 경제고용진흥원(이사장 박성수)은 29일 3층 최상층홀에서 '제2차 ESG경영위원회' 및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 12명이 참여해 지역 중소기업의 ESG경영 실현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제공>

## 김동진 광주대 총장, 대동제 바리스타로 소통

광주대학교 김동진(사진 왼쪽) 총장이 '2022학년도 대동제' 첫날인 지난 27일 '총카페'를 열고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총장과 총학생회장이 함께 운영하는 '총카페'는 이날 학교 정문 주차장에 마련된 특별 부스에서 진행됐다.

김 총장은 박원빈 총학생회장과 함께 호텔외식조리학과와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만들어낸 커피와 에이드 등을 제공했다.

학생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일일이 포즈를 취해주며 서슴없이 대화를 이어가는 등 친근감을 보였다.

'총카페' 음료는 무료로 제공됐지만, 기부함을 마련해 태풍 피해 이재민 돕기 성금으로 전달될 계획이다. 기부자에게는 선착순으로 랜덤 뽑기를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했다.

이날 랜덤뽑기에서 '총장과의 대화'를 뽑은



학생들과는 2-3명씩 관용차에 탑승해 건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학교생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김동진 총장은 "학생들과 가깝게 이야기할 수 있어 기분이 좋다. 학교생활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 수 있도록 열심히 뛰는 젊은 총장이 되겠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과 소통의 기회를 넓혀 가자"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한-우즈벡 수교 30주년' 호남대총장, 우즈벡 영사 환담

주한우즈베크대사관 하이다르 파이지예브(Khaydar Fayziyev) 영사가 최근 호남대학교를 방문해 박상철 총장을 예방하고 환담했다. <사진> 주한우즈베크대사관이 한국·우즈베키스탄 수교 30주년을 맞아 주최한 '동포포럼' 참석차 호남대를 찾은 하이다르 파이지예브 영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호남대가 지역사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명문 사립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생활 게시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30일(음 9월 5일 丙戌)

☎ 010-9790-8237

### 하복

- ▲구태주·이순자씨 아들 구준성군, 최영태(전남대 명예교수)·민영숙씨 딸 최은지 양 = 10월 1일 오후 2시 광주 까사디루체웨딩홀 1층 루체홀
- ▲구자영·강순희씨 아들 구민석군, 김천국(농협합평군 지부장)·형귀례씨 딸 김혜진 양 = 10월 1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더발렌티앙 5층
- ▲김진명(기린산업)·조선희씨 아들 김민수군, 서동욱·황중임씨 딸 서희연 양 = 10월 1일 오후 5시 광주 위더스웨딩홀 3층 아모르홀
- ▲김재덕(월송건설 대표이사)·홍현숙씨 아들 김용진군, 정순열·정이순씨 딸 정혜화 양 = 10월 2일 오전 11시 광주 위더스웨딩홀 3층 아모르홀
- ▲김만길·안지영씨 아들 김정영군, 유홍철(더팩트 광주전남본부 취재국장)·박형미씨 딸 유유진 양 = 10월 3일 낮 12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
- ▲석중대·강정희씨 아들 석무영군, 박주송(법무법인 태경 변호사)·문영순씨 딸 박솔비 양 = 10월 3일 낮 12시 서울 강남구 더라빌



36년생 의외의 결과물 앞에서 매우 기뻐하는 태양이다. 48년생 지속하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60년생 계획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될 형편이다. 72년생 지나친 집착은 대국을 망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84년생 불만이라면 시급히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 96년생 적절한 안배가 필요할 때이다. 행운의 숫자 : 38, 57

37년생 지혜보다 직감이 더 맞는 날이다. 49년생 길경의 물결이 남살다고 있으니 곧 좋은 일이 있으리라. 61년생 일찍부터 서둘러야 늦게라도 겨우 도달하리라. 73년생 긴요한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으니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 85년생 서늘은 생각하고 한 시바빠 본론으로 들어가야 좋다. 97년생 애타게 기다릴 일이 있다. 행운의 숫자 : 43, 65

38년생 미리 예상하고 있어야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50년생 염원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된다. 62년생 재량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음을 알자. 74년생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만 후환이 없겠다. 86년생 전혀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98년생 예상했던 것보다 의외로 간단히 끝나겠다. 행운의 숫자 : 05, 59

39년생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셈이다. 51년생 몸은 고달프더라도 마음은 평안하다. 63년생 바쁘게 뛰는 만큼 소기의 결실이다. 75년생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어느 것보다 가치가 있을 것이다. 87년생 내세운다면 서로 맞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 99년생 때와 장소에 따른 상황 파악에 신중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37, 99

40년생 걱정할 필요 없으니 마음 폭 놓고 있어도 된다. 52년생 지대한 호평을 받을 일이 생길 것이다. 64년생 부담스러운 의뢰를 받을 수도 있는 날이다. 76년생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날로 새로워질 것이다. 88년생 여태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경이로움이 있다. 00년생 패도난마해야 하는 마당에 이르렀다. 행운의 숫자 : 18, 82

41년생 안정된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니라. 53년생 바야흐로 길경을 맞이하게 되리라. 65년생 적당하지 않으면 미련 없이 버려라. 77년생 온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이익이다. 89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빠르다. 01년생 지내놓고 보면 과정에 불과한 것이니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4, 70

42년생 목표지에 미치지 못하여 아쉬워하게 된다. 54년생 일시적으로 마음이 동하더라도 철저히 절제해야만 한다. 66년생 응용의 묘리를 살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78년생 충동적인 판단하에서 기인한다면 후회가 따른다. 90년생 최고의 대안은 경험과 중론 속에서 나오는 법이다. 02년생 조목조목 따져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09, 54

43년생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취하자. 55년생 다방면으로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고도. 67년생 과거의 앙금을 털어버리고 현연히 대하라. 79년생 쏟아내려고만 하지 말고 주위 담도록 하자. 91년생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체념하는 것이 낫다. 03년생 시작이 반이 될 것이니 과감한 실행을 요한다. 행운의 숫자 : 28, 61

44년생 치우친 주관은 위험을 자초할 수도 있느니라. 56년생 폭넓은 시야가 발전적인 단계로 이끈다. 68년생 한눈팔지 말고 현제 마주대하고 있는 바에 주목하라. 80년생 망각으로 인한 손실이 상당할 것이라. 92년생 비우면 채워질 일이다. 집착하면 사라질 것이다. 04년생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문제이다. 행운의 숫자 : 08, 87

33년생 알찬 결실을 잉태하는 마당에 임하리라. 45년생 준수하지 않는다면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57년생 제반사를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69년생 일시적인 과욕으로 인해 기존의 성과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자. 81년생 따오기는 목욕을 하지 않아도 희도다. 93년생 기회들이 연달아서 다가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6, 96

34년생 자연스러움이 합리적으로 작용하리라. 46년생 광선이라면 분명히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느니라. 58년생 겸손함과 검소함 속에서 복이 피어나리라. 70년생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2년생 무탈할 것이니 안심하고 임해도 된다. 94년생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다면 어떠한 판국에서나 헤쳐 나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2, 52

35년생 지금의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니 마음놓고 함께 하여도 무방하다. 47년생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지혜만 있으면 금상첨화이다. 59년생 어려움은 지나갔으니 안심해도 되느니라. 71년생 급작스러운 단절이나 변화가 보인다. 83년생 가꾸어 잘 추스르는 것이 중요하다. 95년생 기쁨을 나누는 행운이 따른다. 행운의 숫자 : 48, 60